1. 농업현황

1.1. 개황

뉴질랜드의 인구는 424만 2,048명(2013년 기준)이며, 2006년 조사와 비교하여 5.3% 증가하였다.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경제의 중심지로 알려진 북섬의 오클랜드(Auckland)이다. 오클랜드의 2013년 인구는 141만 5,550명으로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33.4%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과 비교하여 8.5% 증가로 주요도시 가운데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북섬에 있는 뉴질랜드의 수도인 웰링턴(Wellington)의 인구는 19만 956명이다(2013년 기준). 오클랜드의 뒤를 이어 남섬의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 인구는 34만 1,469명(2013년 기준)으로, 최대도시인 오클랜드와는 100만 명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국토면적은 약 27만㎢이다. 약 63%에 해당하는 약 17만㎢가 농경지이며, 초지나 저목지(低木地) 등으로 방목에 이용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환태평양 지진대 위에 위치하여 2011년 2월 22일에는 남섬 캔터베리 지방의 크라이스트처치 근교를 진원지로 하는 대규모 지진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지형적으로는 북섬과 남섬으로

* flauber@kre.kr (02-3299-4244)
나누어지며, 전체적으로는 평지, 언덕, 고산이 있는 복합적인 지형이다. 북섬은 비교적 평탄하지만, 남섬은 평야지대도 있지만 산악지대와 하천이 많다. 서안해양성 기후에 속하며, 연간 평균기온은 북섬이 약 15℃, 남섬이 약 10℃이다. 강수량은 많은 지역에

![그림 1 뉴질랜드 지도](http://goo.gl/pTzCPZ).

<table>
<thead>
<tr>
<th>도시명</th>
<th>구성비</th>
</tr>
</thead>
<tbody>
<tr>
<td>오클랜드 북섬</td>
<td>33.4%</td>
</tr>
<tr>
<td>크라이스트처치 남섬</td>
<td>8.0%</td>
</tr>
<tr>
<td>웰링턴 북섬</td>
<td>4.5%</td>
</tr>
<tr>
<td>해밀턴 북섬</td>
<td>3.3%</td>
</tr>
<tr>
<td>뉴캐슬 남섬</td>
<td>2.8%</td>
</tr>
<tr>
<td>총인구</td>
<td>100.0%</td>
</tr>
</tbody>
</table>

주: 표 내용 중 웰링턴의 인구는 웰링턴시의 인구로 주변의 Lower Hutt City, Upper Hutt City, Porirua City 등의 인구는 포함하지 않음. 주변 자치체도 포함한 웰링턴광역자치체(Wellington Region)의 인구는 47만 1,309명임.

서 연간 600~1,600mm로 적지 않지만, 건조지역도 있어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가뭄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2013년에는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어 같은 해 3월에는 북서 전 체가 가뭄 자연재해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가뭄으로 목초 생육 상황이 악화되어 낙농 업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기도 하였다.

![그림 2 국토의 용도별 면적(2008년)](https://example.com/image.png)


1.2. 농림수산업 생산

산업별 내역이 발표되는 2011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은 104억 5,200만 NZ달러로 5.2%를 차지한다. 산업별로는 전문업·과학·기술이 7.0%, 임대·부동산이 6.7%, 보건·사회보장이 6.2%로 뒤를 잇고 있다. 도매업 5.2%, 건설 5.2%, 금융·보험은 5.1%로 거의 같은 규모이다. 그 중에서도 농업의 56%를 차지하는 낙농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임업은 14억 5,200만 NZ달러 0.7%, 수산업(양식업 포함)·농림수산 서비스는 13억 2,100만 NZ달러 0.7%로 낙농과 비교하여 규모는 상당히 작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농업에서도 특히 낙농업이 현저하게 성장하였으며(178.8% 증가), GDP 성장률(23.2% 증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낙농업의 확대가 뉴질랜드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업에서 농가구분별 농가호수를 살펴보면, 포도나 키위 등 원예작물과 양, 육우, 낙농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주요 산업의 국내생산액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증감률</th>
<th>구성비</th>
<th>2006</th>
<th>2007</th>
<th>2008</th>
<th>2009</th>
<th>2010</th>
<th>2011</th>
</tr>
</thead>
<tbody>
<tr>
<td>농업</td>
<td>94.3%</td>
<td>5.2%</td>
<td>5,378</td>
<td>6,203</td>
<td>8,942</td>
<td>7,102</td>
<td>8,663</td>
<td>10,452</td>
</tr>
<tr>
<td>원예·과학재배</td>
<td>20.0%</td>
<td>0.6%</td>
<td>916</td>
<td>1,091</td>
<td>1,095</td>
<td>1,087</td>
<td>1,084</td>
<td>1,099</td>
</tr>
<tr>
<td>가축·사료농업</td>
<td>50.9%</td>
<td>1.6%</td>
<td>2,122</td>
<td>2,086</td>
<td>1,975</td>
<td>2,460</td>
<td>2,683</td>
<td>3,202</td>
</tr>
<tr>
<td>낙농</td>
<td>178.8%</td>
<td>2.9%</td>
<td>2,103</td>
<td>2,757</td>
<td>5,701</td>
<td>3,271</td>
<td>4,590</td>
<td>5,863</td>
</tr>
<tr>
<td>기타</td>
<td>21.1%</td>
<td>0.1%</td>
<td>237</td>
<td>269</td>
<td>282</td>
<td>274</td>
<td>296</td>
<td>287</td>
</tr>
<tr>
<td>합계</td>
<td>80.1%</td>
<td>0.7%</td>
<td>806</td>
<td>1,001</td>
<td>900</td>
<td>886</td>
<td>1,127</td>
<td>1,452</td>
</tr>
<tr>
<td>수산업·농림수산역사</td>
<td>9.2%</td>
<td>0.7%</td>
<td>1,210</td>
<td>1,386</td>
<td>1,454</td>
<td>1,359</td>
<td>1,292</td>
<td>1,321</td>
</tr>
<tr>
<td>전문가·과학·기술</td>
<td>28.0%</td>
<td>7.0%</td>
<td>10,877</td>
<td>11,688</td>
<td>12,740</td>
<td>13,265</td>
<td>13,054</td>
<td>13,393</td>
</tr>
<tr>
<td>임업여부통산</td>
<td>27.4%</td>
<td>6.7%</td>
<td>10,453</td>
<td>11,084</td>
<td>11,189</td>
<td>11,370</td>
<td>12,277</td>
<td>13,302</td>
</tr>
<tr>
<td>보건·사회보험</td>
<td>41.5%</td>
<td>6.2%</td>
<td>8,737</td>
<td>9,371</td>
<td>10,302</td>
<td>11,242</td>
<td>11,927</td>
<td>12,369</td>
</tr>
<tr>
<td>도매업</td>
<td>23.5%</td>
<td>5.2%</td>
<td>8,366</td>
<td>8,583</td>
<td>9,318</td>
<td>8,864</td>
<td>9,406</td>
<td>10,327</td>
</tr>
<tr>
<td>건설</td>
<td>17.9%</td>
<td>5.2%</td>
<td>8,732</td>
<td>9,646</td>
<td>10,663</td>
<td>10,389</td>
<td>10,771</td>
<td>10,295</td>
</tr>
<tr>
<td>금융·보험</td>
<td>36.8%</td>
<td>5.1%</td>
<td>7,490</td>
<td>7,760</td>
<td>8,201</td>
<td>9,277</td>
<td>11,020</td>
<td>10,244</td>
</tr>
<tr>
<td>기타</td>
<td>-</td>
<td>-</td>
<td>99,566</td>
<td>103,220</td>
<td>110,353</td>
<td>111,836</td>
<td>110,912</td>
<td>115,417</td>
</tr>
<tr>
<td>국내총생산</td>
<td>232.2%</td>
<td>100.0%</td>
<td>161,614</td>
<td>169,942</td>
<td>184,092</td>
<td>185,608</td>
<td>190,429</td>
<td>199,108</td>
</tr>
</tbody>
</table>

주: 연도는 4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을 나타냄.

1.2.1. 원예작물

(1) 키위

뉴질랜드의 키위 생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된 재배 품종은 1998년에 시험 판매된 품종 ‘제스프리 그린(Zespri Green)’이다. 뉴질랜드 국내뿐

표 3 키위의 생산 및 판매 상황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생산호수(호)</td>
<td>2,506</td>
<td>2,748</td>
<td>2,710</td>
<td>2,711</td>
<td>2,706</td>
<td>2,662</td>
<td>2,636</td>
</tr>
<tr>
<td>경작면적(ha)</td>
<td>10,159</td>
<td>11,646</td>
<td>12,337</td>
<td>12,525</td>
<td>12,825</td>
<td>12,502</td>
<td>12,263</td>
</tr>
<tr>
<td>출하량(백만 달러)</td>
<td>66.5</td>
<td>87.8</td>
<td>109.4</td>
<td>107.0</td>
<td>105.9</td>
<td>119.5</td>
<td>105.7</td>
</tr>
<tr>
<td>판매량(백만 달러)</td>
<td>61.5</td>
<td>82.3</td>
<td>99.9</td>
<td>96.5</td>
<td>98.1</td>
<td>103.1</td>
<td>101.3</td>
</tr>
</tbody>
</table>

주: 연도는 4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을 나타냄. 1트레이는 중량 3.6kg의 분량임.
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EU 등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판매를 한 결과, 현재 뉴질랜드의 주요 농산물로 인지되고 있다. 생산 및 판매 상황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의 개척 및 수출 확대에 따라 2009년경까지 출하량 증가가 계속되었지만, 그 후에는 거의 제거리결음으로 하고 있다.

(2) 포도

2000년경부터 와인 수출이 급증하였다. 수출액의 변화를 보면, 2003년에는 키위와 사과(가공품 포함)의 뒷을 잇고 있었지만, 2013년에는 두 품목을 상회하였고 완제품을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였다. 와인 수출 확대와 함께 와인 생산을 직접 하는 기업체 수와 와인용 포도의 생산량도 증가하였다. 와인 기업체수는 2011년에 약 700개사에 도달하였고, 포도 생산량은 2003년에는 약 7만 5,000톤, 10년 후인 2013년에는 4배 이상인 약 33만 6,000톤까지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북섬 북부의 말보로 지역 (Marlborough Region)이 포도 생산량의 73%(2013년)를 차지하는 산지가 되었다.

![グラフ 3: 와인 생산 기업체수](image)

주: 기업수로 와인용 포도밭 수는 상이함.  

제배 품종은 화이트 와인용 포도의 일종인 ’쇼비뇽 블랑 (Sauvignon Blanc)’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제배 면적 및 생산량의 확대도 현저한 편이다.
표 4 주요 포도 품종별 생산 현황

<table>
<thead>
<tr>
<th>품종</th>
<th>재배면적(ha)</th>
<th>생산량(톤)</th>
</tr>
</thead>
<tbody>
<tr>
<td>백포도</td>
<td></td>
<td></td>
</tr>
<tr>
<td>소비뇽블랑</td>
<td>4,516</td>
<td>13,988</td>
</tr>
<tr>
<td>사르도네</td>
<td>3,515</td>
<td>3,881</td>
</tr>
<tr>
<td>피노그리</td>
<td>316</td>
<td>1,383</td>
</tr>
<tr>
<td>리졸링</td>
<td>653</td>
<td>917</td>
</tr>
<tr>
<td>개비츠트라미네르</td>
<td>197</td>
<td>316</td>
</tr>
<tr>
<td>적포도</td>
<td></td>
<td></td>
</tr>
<tr>
<td>피노누아</td>
<td>2,624</td>
<td>4,650</td>
</tr>
<tr>
<td>매럴로</td>
<td>1,249</td>
<td>1,363</td>
</tr>
<tr>
<td>시라</td>
<td>134</td>
<td>276</td>
</tr>
<tr>
<td>개바르네셔비농</td>
<td>741</td>
<td>516</td>
</tr>
<tr>
<td>기타(품종불명포함)</td>
<td>1,855</td>
<td>2,018</td>
</tr>
<tr>
<td>합계</td>
<td>15,800</td>
<td>29,310</td>
</tr>
</tbody>
</table>

주: 숫자는 New Zealand Winegrowers에 의한 Vintage Survey 회답 기준.

1.2.2. 축산물

육류(양, 소 등)는 뉴질랜드에서 유제품 다음으로 많은 수출액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요한 수출품목 중 하나이다.
가축별 사육두수를 살펴보면, 양이 압도적으로 많다. 뉴질랜드에서 사육되는 양의 품종은 약 50%가 롤니종(Romney)이며, 식육과 양모 등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예전

표 5 주요 가축의 사육두수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양</td>
<td>38,572</td>
<td>38,460</td>
<td>31,263</td>
<td>▼21.0%</td>
</tr>
<tr>
<td>육우</td>
<td>4,401</td>
<td>4,394</td>
<td>3,734</td>
<td>▼16.9%</td>
</tr>
<tr>
<td>사슴</td>
<td>1,648</td>
<td>1,386</td>
<td>1,061</td>
<td>▼36.6%</td>
</tr>
<tr>
<td>돼지</td>
<td>342</td>
<td>367</td>
<td>314</td>
<td>▼8.3%</td>
</tr>
<tr>
<td>산양</td>
<td>153</td>
<td>112</td>
<td>90</td>
<td>▼41.1%</td>
</tr>
<tr>
<td>말</td>
<td>76</td>
<td>66</td>
<td>57</td>
<td>▼25.0%</td>
</tr>
<tr>
<td>천식잔고</td>
<td>5,162</td>
<td>5,269</td>
<td>6,446</td>
<td>24.9%</td>
</tr>
</tbody>
</table>

주: 각 연도 6월 30일 시점, 숫자는 모든 농가에서 양의 사육두수의 합계치, 예를 들면, 농가구분별 양의 사육농가(야목, 육목)를 사육하고 있는 경우 동도 동일, 그러한 경우를 모두 포함.
양모로 수출되는 비율이 높았지만, 양모의 국제가격 하락에 의해, 현재는 주로 식육으로 수출되고 있다. 양고기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과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와 미국 등이다.

최대의 사육두수인 양을 시작으로 육수 등 주요 가축의 사육두수는 과거 10년 간 대폭 감소한 한편, 젖소는 약 25% 증가하였다. 2007년 이후 생유의 국제가격이 최고치로 전환된 결과, 높은 생산자 유가(낙농가에 대한 지불 단가)가 유인되어 사육하고 있는 것은 양모수의 확대와 일부 축산농가의 낙농으로의 업종전환, 낙농으로의 신규참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1.2.3. 낙농제품

유제품은 뉴질랜드 최대 수출품목이며, 그 원재료인 생유를 생산하는 낙농업은 가치사슬(value chain)의 기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낙농가수는 2009년까지 감소 경향에 있었지만, 그 후에는 제동이 걸리면서 농장면적 및 사육두수는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뉴질랜드 전체의 생유 및 유고형분 생산량도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다.

표 6 뉴질랜드 낙농 개황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낙농가수 (호)</th>
<th>농장면적 (ha)</th>
<th>1호당 농장면적 (ha)</th>
<th>젖소 사육두수 (백만 두)</th>
<th>생유생산량 (억리터)</th>
<th>유고형분생산량 (만 톤)</th>
</tr>
</thead>
<tbody>
<tr>
<td>1995</td>
<td>14,736</td>
<td>1,283,352</td>
<td>82.0</td>
<td>2.94</td>
<td>93.3</td>
<td>78.8</td>
</tr>
<tr>
<td>2000</td>
<td>13,082</td>
<td>1,329,173</td>
<td>95.7</td>
<td>3.49</td>
<td>129.3</td>
<td>109.6</td>
</tr>
<tr>
<td>2005</td>
<td>11,983</td>
<td>1,398,996</td>
<td>117.7</td>
<td>3.83</td>
<td>147.0</td>
<td>126.7</td>
</tr>
<tr>
<td>2009</td>
<td>11,991</td>
<td>1,553,465</td>
<td>133.7</td>
<td>4.40</td>
<td>154.8</td>
<td>143.8</td>
</tr>
<tr>
<td>2010</td>
<td>11,735</td>
<td>1,637,706</td>
<td>136.0</td>
<td>4.53</td>
<td>173.4</td>
<td>151.3</td>
</tr>
<tr>
<td>2011</td>
<td>11,798</td>
<td>1,668,546</td>
<td>138.9</td>
<td>4.63</td>
<td>191.3</td>
<td>168.5</td>
</tr>
</tbody>
</table>

주: 유고형분은 유지방분+유단백분, 연도는 6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을 나타냄.

1.3. 농림수산업 무역

농림수산업의 수출입총액은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는 주춤했지만, 2012년에는 수출 및 수입 모두 460억 NZ달러 전후로 상승세로 변화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에서는 유제품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둔류 이어 유크류가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과일이나 어패류의 수출을 합하여 농산품 수출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이다.

세계농업 제76호 | 7
국가별 농업자료

표 7 품목별 수출입 (2012년 상위 10개 품목) 단위: 백만 NZ달러

<table>
<thead>
<tr>
<th>품목</th>
<th>수출(FOB)</th>
<th>수입(CIF)</th>
</tr>
</thead>
<tbody>
<tr>
<td></td>
<td>금액</td>
<td>구성비</td>
</tr>
<tr>
<td>1. 유제품</td>
<td>11,476</td>
<td>25.1%</td>
</tr>
<tr>
<td>2. 육류</td>
<td>5,249</td>
<td>11.5%</td>
</tr>
<tr>
<td>3. 목재</td>
<td>3,374</td>
<td>7.4%</td>
</tr>
<tr>
<td>4. 광물성연료·광물유</td>
<td>2,004</td>
<td>4.4%</td>
</tr>
<tr>
<td>5. 전력(전기·전기기기)</td>
<td>1,683</td>
<td>3.6%</td>
</tr>
<tr>
<td>6. 과일·견과류</td>
<td>1,553</td>
<td>3.4%</td>
</tr>
<tr>
<td>7. 원자로·보일러, 기계류</td>
<td>1,545</td>
<td>3.4%</td>
</tr>
<tr>
<td>8. 음료</td>
<td>1,467</td>
<td>3.2%</td>
</tr>
<tr>
<td>9. 어류·갑작류</td>
<td>1,345</td>
<td>2.9%</td>
</tr>
<tr>
<td>10. 단백질질·전복류</td>
<td>1,207</td>
<td>2.6%</td>
</tr>
<tr>
<td>전체</td>
<td>45,704</td>
<td>100.0%</td>
</tr>
</tbody>
</table>


국가별로 살펴보면, 이웃한 호주로의 수출액은 매년 약 100억 NZ달러로 변동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강하게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현저히 확대되고 있는데, 2008년(2008/7~2009/6)에는 약 34억 NZ달러이었는데 2012년(2012/7~2013/6)에는 약 2.3배인 약 77억 NZ달러까지 증가하여 제2의 수출국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수출상대국으로 과거와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표 8 참조>.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1 호주</td>
<td>9,717</td>
<td>9,651</td>
<td>10,314</td>
<td>10,460</td>
<td>9,531</td>
<td>▼1.9%</td>
</tr>
<tr>
<td>2 중국</td>
<td>3,369</td>
<td>4,109</td>
<td>5,635</td>
<td>6,106</td>
<td>7,715</td>
<td>16.9%</td>
</tr>
<tr>
<td>3 미국</td>
<td>4,808</td>
<td>3,566</td>
<td>3,931</td>
<td>4,083</td>
<td>4,116</td>
<td>▼14.4%</td>
</tr>
<tr>
<td>4 일본</td>
<td>3,373</td>
<td>3,070</td>
<td>3,371</td>
<td>3,387</td>
<td>9,531</td>
<td>▼12.7%</td>
</tr>
<tr>
<td>5 한국</td>
<td>1,282</td>
<td>1,322</td>
<td>1,566</td>
<td>1,585</td>
<td>1,566</td>
<td>3.5%</td>
</tr>
<tr>
<td>6 영국</td>
<td>1,757</td>
<td>1,567</td>
<td>1,515</td>
<td>1,443</td>
<td>1,388</td>
<td>▼20.0%</td>
</tr>
<tr>
<td>7 싱가포르</td>
<td>791</td>
<td>1,143</td>
<td>760</td>
<td>866</td>
<td>888</td>
<td>12.3%</td>
</tr>
<tr>
<td>8 대만</td>
<td>769</td>
<td>814</td>
<td>894</td>
<td>803</td>
<td>865</td>
<td>12.6%</td>
</tr>
<tr>
<td>9 인도네시아</td>
<td>1,065</td>
<td>897</td>
<td>857</td>
<td>837</td>
<td>▼21.4%</td>
<td></td>
</tr>
<tr>
<td>10 말레이시아</td>
<td>796</td>
<td>751</td>
<td>829</td>
<td>907</td>
<td>836</td>
<td>1.8%</td>
</tr>
<tr>
<td>11 홍콩</td>
<td>823</td>
<td>826</td>
<td>788</td>
<td>817</td>
<td>▼0.7%</td>
<td></td>
</tr>
<tr>
<td>12 인도</td>
<td>727</td>
<td>726</td>
<td>885</td>
<td>724</td>
<td>▼0.3%</td>
<td></td>
</tr>
<tr>
<td>13 독일</td>
<td>660</td>
<td>666</td>
<td>742</td>
<td>716</td>
<td>▼16.8%</td>
<td></td>
</tr>
<tr>
<td>14 필리핀</td>
<td>671</td>
<td>661</td>
<td>722</td>
<td>672</td>
<td>1.5%</td>
<td></td>
</tr>
<tr>
<td>15 태국</td>
<td>573</td>
<td>532</td>
<td>733</td>
<td>684</td>
<td>633</td>
<td>1.4%</td>
</tr>
<tr>
<td>16 러시아</td>
<td>582</td>
<td>513</td>
<td>689</td>
<td>640</td>
<td>627</td>
<td>1.4%</td>
</tr>
<tr>
<td>17 뉴질랜드</td>
<td>524</td>
<td>457</td>
<td>564</td>
<td>588</td>
<td>605</td>
<td>1.3%</td>
</tr>
<tr>
<td>18 아르헨티나</td>
<td>385</td>
<td>401</td>
<td>480</td>
<td>536</td>
<td>569</td>
<td>1.2%</td>
</tr>
<tr>
<td>19 베트남</td>
<td>515</td>
<td>479</td>
<td>540</td>
<td>566</td>
<td>546</td>
<td>▼1.2%</td>
</tr>
<tr>
<td>20 세계합계</td>
<td>43,028</td>
<td>40,669</td>
<td>46,072</td>
<td>46,688</td>
<td>45,704</td>
<td>6.2%</td>
</tr>
</tbody>
</table>


수출액 상위 5개국 즉, 호주, 중국, 미국, 일본, 한국에 대한 수출액 합계는 수출총액의 약 54%로 수출액 상위의 품목은 다음과 같다<표 9 참조>. 식료품에 주목하여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분유, 미국에서는 쇠고기(냉동), 일본에서는 치즈나 과일의 비율이 높고, 한국에서는 치즈와 쇠고기 비율이 높다.
표 9 수출 국가별 수출액 상위 5개국으로의 주요 수출품목(2012년)

<table>
<thead>
<tr>
<th>구분</th>
<th>호주</th>
<th>중국</th>
<th>미국</th>
<th>일본</th>
<th>한국</th>
</tr>
</thead>
<tbody>
<tr>
<td>수출총액</td>
<td>9,531</td>
<td>7,715</td>
<td>4,116</td>
<td>2,945</td>
<td>1,585</td>
</tr>
</tbody>
</table>

| | | | | |
| 상위 | 1 | 원유 | 17.1% | 분유 | 30.5% | 쇠고기(냉동) | 22.4% | 알루미늄 | 15.6% | 비금포(주) | 17.8% |
| | 2 | 금 | 6.9% | 목재 | 16.9% | 카제인 | 7.5% | 채즈 | 10.8% | 목재 | 17.7% |
| | 3 | 와인 | 3.9% | 양고기 | 7.2% | 유황 유산소산 분 | 7.0% | 과일 | 8.9% | 채즈 | 8.4% |
| | 4 | 식료품 | 2.3% | 양모 | 4.8% | 와인 | 6.9% | 섭유판 | 5.0% | 소금/염분 | 7.1% |
| | 5 | 채즈 | 2.2% | 갑각류 | 3.1% | 양고기 | 5.2% | 쇠고기(냉동) | 4.2% | 임국미물 | 6.9% |

주: ‘Confidential items’로 분류된 품목. 2010년에는 5천2백만 달러로 17.8%를 차지하였는데 2010년에는 37만 달러 (수출총액의 0.1% 미만), 2011년에는 93만 달러 (수출총액의 0.1% 미만)이었다.


2012년에는 유제품이 농산품 수출총액에서 47%를 차지하였고, 식육 및 식육가공품은 21%, 과일 및 체소는 8%이었다. 이 세 품목이 수출총액의 75%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전 주요 수출품목의 하나였던 양모의 수출액은 해마다 감소하여, 2012년에는 수출총액의 2%에 머물렀다. 농산품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호주, 일본, 영국이다.

그림 5 농산품 수출액 변화


1.3.1. 원예작물

채소와 과일은 모두 호주와 일본이 수출국의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수출 확대가 현저한 외연은 호주, 미국, 영국 등 3개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10 채소의 국가별 수출액 변화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10</th>
<th>2011</th>
<th>2012</th>
<th>구성비</th>
<th>증감률 2010~2012</th>
</tr>
</thead>
<tbody>
<tr>
<td>1 호주</td>
<td>119</td>
<td>122</td>
<td>107</td>
<td>26.5%</td>
<td>▼ 9.9%</td>
</tr>
<tr>
<td>2 일본</td>
<td>120</td>
<td>124</td>
<td>103</td>
<td>25.4%</td>
<td>▼ 13.9%</td>
</tr>
<tr>
<td>3 피지</td>
<td>21</td>
<td>20</td>
<td>21</td>
<td>5.3%</td>
<td>0.2%</td>
</tr>
<tr>
<td>4 말라야시아</td>
<td>9</td>
<td>7</td>
<td>17</td>
<td>4.1%</td>
<td>81.2%</td>
</tr>
<tr>
<td>5 네팔</td>
<td>27</td>
<td>11</td>
<td>17</td>
<td>4.1%</td>
<td>▼ 37.6%</td>
</tr>
<tr>
<td>6 한국</td>
<td>13</td>
<td>18</td>
<td>16</td>
<td>3.9%</td>
<td>18.4%</td>
</tr>
<tr>
<td>7 영국</td>
<td>20</td>
<td>7</td>
<td>13</td>
<td>3.1%</td>
<td>▼ 37.0%</td>
</tr>
<tr>
<td>8 미국</td>
<td>9</td>
<td>13</td>
<td>11</td>
<td>2.7%</td>
<td>▼ 37.6%</td>
</tr>
<tr>
<td>9 인도네시아</td>
<td>12</td>
<td>4</td>
<td>7</td>
<td>1.8%</td>
<td>▼ 39.9%</td>
</tr>
<tr>
<td>10 독일</td>
<td>13</td>
<td>6</td>
<td>7</td>
<td>1.7%</td>
<td>▼ 43.8%</td>
</tr>
<tr>
<td>상위 10개국 합계</td>
<td>362</td>
<td>331</td>
<td>318</td>
<td>78.6%</td>
<td>▼ 12.1%</td>
</tr>
<tr>
<td>세계 합계</td>
<td>449</td>
<td>407</td>
<td>405</td>
<td>100.0%</td>
<td>▼ 9.8%</td>
</tr>
</tbody>
</table>

주: 2012년 상위 10개국 기준에서 2010년부터의 변화를 기재함. HS code 7류 채소(예, 감자, 토마토, 양파, 채소, 양배추, 당근, 오이류, 냉동채소, 건조채소 등).

표 11 과일과 견과류의 국가별 수출액 변화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10</th>
<th>2011</th>
<th>2012</th>
<th>구성비</th>
<th>증감률 2010~2012</th>
</tr>
</thead>
<tbody>
<tr>
<td>1 일본</td>
<td>268</td>
<td>349</td>
<td>279</td>
<td>17.9%</td>
<td>▼ 6.8%</td>
</tr>
<tr>
<td>2 EU</td>
<td>252</td>
<td>248</td>
<td>227</td>
<td>14.8%</td>
<td>▼ 9.6%</td>
</tr>
<tr>
<td>3 중국</td>
<td>86</td>
<td>98</td>
<td>131</td>
<td>8.4%</td>
<td>▼ 52.2%</td>
</tr>
<tr>
<td>4 호주</td>
<td>116</td>
<td>105</td>
<td>109</td>
<td>7.0%</td>
<td>▼ 6.2%</td>
</tr>
<tr>
<td>5 대만</td>
<td>106</td>
<td>98</td>
<td>105</td>
<td>6.7%</td>
<td>▼ 1.5%</td>
</tr>
<tr>
<td>6 미국</td>
<td>80</td>
<td>80</td>
<td>97</td>
<td>6.2%</td>
<td>▼ 20.1%</td>
</tr>
<tr>
<td>7 스페인</td>
<td>96</td>
<td>71</td>
<td>79</td>
<td>5.1%</td>
<td>▼ 16.9%</td>
</tr>
<tr>
<td>8 영국</td>
<td>48</td>
<td>50</td>
<td>57</td>
<td>3.7%</td>
<td>▼ 18.5%</td>
</tr>
<tr>
<td>9 태국</td>
<td>32</td>
<td>36</td>
<td>55</td>
<td>3.5%</td>
<td>72.9%</td>
</tr>
<tr>
<td>10 네팔</td>
<td>54</td>
<td>35</td>
<td>52</td>
<td>3.4%</td>
<td>▼ 36.0%</td>
</tr>
<tr>
<td>상위 10개국 합계</td>
<td>1,169</td>
<td>1,229</td>
<td>1,191</td>
<td>76.7%</td>
<td>▼ 1.9%</td>
</tr>
<tr>
<td>세계 합계</td>
<td>1,490</td>
<td>1,589</td>
<td>1,553</td>
<td>100.0%</td>
<td>4.2%</td>
</tr>
</tbody>
</table>

주: 2012년 상위 10개국 기준에서 2010년부터의 변화를 기재함. HS code 8류 과실 및 견과류(예, 코코넛, 브라질넛, 캐슈넛, 건마디, 바나나, 대추, 무화과, 포인애플, 가야바, 밀고, 감귤류, 포도, 멜론, 사과, 배, 살구, 버찌, 복숭아, 냉동과실, 냉동견과류, 건조과실 등)
### 표 12 키위 · 기타 과일의 국가별 수출액 변화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10</th>
<th>2011</th>
<th>2012</th>
<th>구성비</th>
<th>증감율 2010→2012</th>
</tr>
</thead>
<tbody>
<tr>
<td>1 일본</td>
<td>288</td>
<td>326</td>
<td>262</td>
<td>27.0%</td>
<td>▼ 8.8%</td>
</tr>
<tr>
<td>2 EU</td>
<td>209</td>
<td>215</td>
<td>187</td>
<td>19.3%</td>
<td>▼ 10.3%</td>
</tr>
<tr>
<td>3 중국</td>
<td>84</td>
<td>94</td>
<td>107</td>
<td>11.1%</td>
<td>27.9%</td>
</tr>
<tr>
<td>4 대만</td>
<td>67</td>
<td>71</td>
<td>82</td>
<td>8.6%</td>
<td>22.7%</td>
</tr>
<tr>
<td>5 스페인</td>
<td>92</td>
<td>70</td>
<td>75</td>
<td>7.7%</td>
<td>▼ 18.9%</td>
</tr>
<tr>
<td>6 호주</td>
<td>55</td>
<td>65</td>
<td>67</td>
<td>6.9%</td>
<td>22.5%</td>
</tr>
<tr>
<td>7 한국</td>
<td>62</td>
<td>78</td>
<td>43</td>
<td>4.4%</td>
<td>▼ 30.2%</td>
</tr>
<tr>
<td>8 콜롬비아</td>
<td>24</td>
<td>30</td>
<td>30</td>
<td>3.1%</td>
<td>26.9%</td>
</tr>
<tr>
<td>9 이탈리아</td>
<td>28</td>
<td>31</td>
<td>24</td>
<td>2.4%</td>
<td>▼ 15.3%</td>
</tr>
<tr>
<td>10 미국</td>
<td>29</td>
<td>28</td>
<td>23</td>
<td>2.4%</td>
<td>▼ 19.8%</td>
</tr>
<tr>
<td>상위 10개국 합계</td>
<td>937</td>
<td>1,008</td>
<td>901</td>
<td>92.8%</td>
<td>▼ 3.8%</td>
</tr>
<tr>
<td>세계 합계</td>
<td>995</td>
<td>1,076</td>
<td>972</td>
<td>100.0%</td>
<td>▼ 2.4%</td>
</tr>
</tbody>
</table>

주: 2012년 상위 10개국 기준에서 2010년부터의 변화를 기재한 HS code 8010.

### 표 13 와인의 국가별 수출액 변화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10</th>
<th>2011</th>
<th>2012</th>
<th>구성비</th>
<th>증감율 2010→2012</th>
</tr>
</thead>
<tbody>
<tr>
<td>1 호주</td>
<td>338</td>
<td>382</td>
<td>373</td>
<td>30.8%</td>
<td>10.4%</td>
</tr>
<tr>
<td>2 미국</td>
<td>232</td>
<td>251</td>
<td>283</td>
<td>23.4%</td>
<td>22.2%</td>
</tr>
<tr>
<td>3 영국</td>
<td>294</td>
<td>284</td>
<td>278</td>
<td>23.0%</td>
<td>▼ 5.3%</td>
</tr>
<tr>
<td>4 캐나다</td>
<td>59</td>
<td>71</td>
<td>78</td>
<td>6.5%</td>
<td>32.0%</td>
</tr>
<tr>
<td>5 중국</td>
<td>17</td>
<td>25</td>
<td>27</td>
<td>2.2%</td>
<td>59.3%</td>
</tr>
<tr>
<td>6 네덜란드</td>
<td>27</td>
<td>27</td>
<td>27</td>
<td>2.2%</td>
<td>▼ 2.9%</td>
</tr>
<tr>
<td>7 콜롬비아</td>
<td>18</td>
<td>18</td>
<td>20</td>
<td>1.7%</td>
<td>16.2%</td>
</tr>
<tr>
<td>8 이탈리아</td>
<td>14</td>
<td>15</td>
<td>16</td>
<td>1.3%</td>
<td>15.3%</td>
</tr>
<tr>
<td>9 스위스</td>
<td>16</td>
<td>16</td>
<td>14</td>
<td>1.2%</td>
<td>▼ 9.5%</td>
</tr>
<tr>
<td>10 일본</td>
<td>11</td>
<td>13</td>
<td>14</td>
<td>1.1%</td>
<td>22.9%</td>
</tr>
<tr>
<td>상위 10개국 합계</td>
<td>1,025</td>
<td>1,008</td>
<td>901</td>
<td>92.8%</td>
<td>10.3%</td>
</tr>
<tr>
<td>세계 합계</td>
<td>1,094</td>
<td>1,076</td>
<td>972</td>
<td>100.0%</td>
<td>10.6%</td>
</tr>
</tbody>
</table>

주: 2012년 상위 10개국 기준에서 2010년부터의 변화를 기재한 HS code 2204.

### 1.3.2. 축산물

축산물은 품목에 따라 특정 국가에 수출이 집중되고 있다. 냉장 쇠고기는 일본, 냉동 쇠고기는 미국으로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다. 중국으로는 냉동 쇠고기 및 양고기를

세계농업 제76호 | 13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량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해외에서 중국으로 진출하는 외식산업계의 식육 수요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1 일본</td>
<td>73</td>
<td>71</td>
<td>69</td>
<td>26.1%</td>
<td>▼ 4.7%</td>
</tr>
<tr>
<td>2 프랑스령폴리네시아</td>
<td>26</td>
<td>27</td>
<td>26</td>
<td>9.9%</td>
<td>▼ 0.8%</td>
</tr>
<tr>
<td>3 아프리카연합</td>
<td>18</td>
<td>21</td>
<td>19</td>
<td>7.2%</td>
<td>7.5%</td>
</tr>
<tr>
<td>4 싱가포르</td>
<td>16</td>
<td>16</td>
<td>18</td>
<td>6.6%</td>
<td>11.6%</td>
</tr>
<tr>
<td>5 미국</td>
<td>9</td>
<td>11</td>
<td>13</td>
<td>4.7%</td>
<td>33.0%</td>
</tr>
<tr>
<td>6 대한민</td>
<td>12</td>
<td>12</td>
<td>12</td>
<td>4.5%</td>
<td>▼ 2.9%</td>
</tr>
<tr>
<td>7 네덜란드</td>
<td>11</td>
<td>12</td>
<td>12</td>
<td>4.4%</td>
<td>2.1%</td>
</tr>
<tr>
<td>8 영국</td>
<td>12</td>
<td>9</td>
<td>10</td>
<td>3.9%</td>
<td>▼ 12.6%</td>
</tr>
<tr>
<td>9 뉴질랜드</td>
<td>7</td>
<td>9</td>
<td>10</td>
<td>3.8%</td>
<td>51.9%</td>
</tr>
<tr>
<td>10 독일</td>
<td>8</td>
<td>8</td>
<td>9</td>
<td>3.3%</td>
<td>5.5%</td>
</tr>
<tr>
<td>상위 10개국 합계</td>
<td>192</td>
<td>195</td>
<td>197</td>
<td>74.3%</td>
<td>2.6%</td>
</tr>
<tr>
<td>세계 합계</td>
<td>262</td>
<td>261</td>
<td>265</td>
<td>100.0%</td>
<td>1.3%</td>
</tr>
</tbody>
</table>

주: HS code 0201.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1 미국</td>
<td>771</td>
<td>824</td>
<td>921</td>
<td>49.0%</td>
<td>19.4%</td>
</tr>
<tr>
<td>2 중국</td>
<td>13</td>
<td>21</td>
<td>166</td>
<td>8.8%</td>
<td>1,626.2%</td>
</tr>
<tr>
<td>3 일본</td>
<td>130</td>
<td>120</td>
<td>125</td>
<td>6.6%</td>
<td>▼ 4.4%</td>
</tr>
<tr>
<td>4 대한민</td>
<td>118</td>
<td>117</td>
<td>116</td>
<td>6.2%</td>
<td>▼ 2.1%</td>
</tr>
<tr>
<td>5 한국</td>
<td>168</td>
<td>124</td>
<td>113</td>
<td>6.0%</td>
<td>▼ 32.9%</td>
</tr>
<tr>
<td>6 캐나다</td>
<td>117</td>
<td>95</td>
<td>84</td>
<td>4.5%</td>
<td>▼ 28.1%</td>
</tr>
<tr>
<td>7 필리핀</td>
<td>38</td>
<td>41</td>
<td>37</td>
<td>2.0%</td>
<td>▼ 2.4%</td>
</tr>
<tr>
<td>8 인도네시아</td>
<td>100</td>
<td>89</td>
<td>34</td>
<td>1.8%</td>
<td>▼ 65.8%</td>
</tr>
<tr>
<td>9 콜롬비아</td>
<td>26</td>
<td>36</td>
<td>27</td>
<td>1.4%</td>
<td>▼ 5.2%</td>
</tr>
<tr>
<td>10 멜리수시아</td>
<td>14</td>
<td>22</td>
<td>27</td>
<td>1.4%</td>
<td>88.9%</td>
</tr>
<tr>
<td>상위 10개국 합계</td>
<td>1,494</td>
<td>1,488</td>
<td>1,548</td>
<td>87.8%</td>
<td>10.3%</td>
</tr>
<tr>
<td>세계 합계</td>
<td>1,774</td>
<td>1,748</td>
<td>1,878</td>
<td>100.0%</td>
<td>5.8%</td>
</tr>
</tbody>
</table>

주: HS code 0202.
표 16 양고기(냉동·냉장)의 국가별 수출액 변화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10</th>
<th>2011</th>
<th>2012</th>
<th>구성비</th>
<th>증감률 2010→2012</th>
</tr>
</thead>
<tbody>
<tr>
<td>1 중국</td>
<td>176</td>
<td>247</td>
<td>554</td>
<td>20.8%</td>
<td>214.0%</td>
</tr>
<tr>
<td>2 영국</td>
<td>581</td>
<td>534</td>
<td>537</td>
<td>20.2%</td>
<td>▼ 7.4%</td>
</tr>
<tr>
<td>3 독일</td>
<td>273</td>
<td>275</td>
<td>237</td>
<td>8.9%</td>
<td>▼ 13.1%</td>
</tr>
<tr>
<td>4 미국</td>
<td>311</td>
<td>255</td>
<td>211</td>
<td>7.9%</td>
<td>▼ 32.1%</td>
</tr>
<tr>
<td>5 네덜란드</td>
<td>137</td>
<td>161</td>
<td>136</td>
<td>5.1%</td>
<td>▼ 1.9%</td>
</tr>
<tr>
<td>6 프랑스</td>
<td>226</td>
<td>159</td>
<td>112</td>
<td>4.5%</td>
<td>▴ 46.6%</td>
</tr>
<tr>
<td>7 사우디아라비아</td>
<td>92</td>
<td>84</td>
<td>91</td>
<td>3.4%</td>
<td>▴ 1.1%</td>
</tr>
<tr>
<td>8 캐나다</td>
<td>112</td>
<td>102</td>
<td>86</td>
<td>3.2%</td>
<td>▴ 23.1%</td>
</tr>
<tr>
<td>9 벨기에</td>
<td>185</td>
<td>122</td>
<td>82</td>
<td>3.1%</td>
<td>▴ 58.1%</td>
</tr>
<tr>
<td>10 요르단</td>
<td>45</td>
<td>58</td>
<td>52</td>
<td>2.0%</td>
<td>▴ 16.1%</td>
</tr>
<tr>
<td>상위 10개국 합계</td>
<td>2,147</td>
<td>1,996</td>
<td>2,105</td>
<td>79.2%</td>
<td>▴ 1.9%</td>
</tr>
<tr>
<td>세계 합계</td>
<td>2,912</td>
<td>2,639</td>
<td>2,658</td>
<td>100.0%</td>
<td>▴ 8.7%</td>
</tr>
</tbody>
</table>

주: HS code 0204.10, 0204.21, 0204.22, 0204.30, 0204.41, 0204.42, 0204.43.

1.3.3. 낙농제품

뉴질랜드 낙농제품의 수출 규모는 EU 27개국의 합계에 필적하며, 농작물 변성한 호주나 미국보다도 2배 이상 큰 규모이다. 특히 약 60%를 우유 및 크림이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약 7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다. 유제품 전체의 수출액은 약 124.9억 달러(2012년도)이며, 2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2010년부터의 성장을 보면, 중국,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United Arab Emirates)의 확대가 눈에 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우유 및 크림은 수출액의 약 3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품목의 수출액 상위국에도 중국이 들어가 있다. 한국은 치즈와 카제인 카제인음료를 수입하고 있다. 1)

1) 한국은 뉴질랜드로부터 2012년 기준으로 치즈를 1억 3,300만 달러, 카제인 및 카제인음료는 3,400만 달러의 치유를 수입하고 있다.
표 17 낙농제품 전체의 국가별 수출액 변화
단위 백만 NZ달러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10</th>
<th>2011</th>
<th>2012</th>
<th>구성비</th>
<th>증감률 2010~2012</th>
</tr>
</thead>
<tbody>
<tr>
<td>1 중국</td>
<td>2,286</td>
<td>2,302</td>
<td>2,978</td>
<td>23.8%</td>
<td>30.3%</td>
</tr>
<tr>
<td>2 미국</td>
<td>773</td>
<td>915</td>
<td>843</td>
<td>6.7%</td>
<td>9.0%</td>
</tr>
<tr>
<td>3 일본</td>
<td>542</td>
<td>583</td>
<td>565</td>
<td>4.5%</td>
<td>4.2%</td>
</tr>
<tr>
<td>4 필리핀</td>
<td>507</td>
<td>490</td>
<td>459</td>
<td>3.7%</td>
<td>▼ 9.5%</td>
</tr>
<tr>
<td>5 인도네시아</td>
<td>360</td>
<td>431</td>
<td>435</td>
<td>3.9%</td>
<td>20.7%</td>
</tr>
<tr>
<td>6 아랍에미리트연합</td>
<td>344</td>
<td>472</td>
<td>424</td>
<td>3.4%</td>
<td>23.4%</td>
</tr>
<tr>
<td>7 사우디아라비아</td>
<td>487</td>
<td>446</td>
<td>424</td>
<td>3.4%</td>
<td>▼ 12.9%</td>
</tr>
<tr>
<td>8 아일랜드</td>
<td>419</td>
<td>346</td>
<td>423</td>
<td>3.4%</td>
<td>0.8%</td>
</tr>
<tr>
<td>9 말레시아</td>
<td>431</td>
<td>461</td>
<td>419</td>
<td>3.4%</td>
<td>▼ 2.7%</td>
</tr>
<tr>
<td>10 호주</td>
<td>539</td>
<td>499</td>
<td>399</td>
<td>3.2%</td>
<td>▼ 26.0%</td>
</tr>
<tr>
<td>상위 10개국 합계</td>
<td>6,689</td>
<td>6,945</td>
<td>7,369</td>
<td>59.0%</td>
<td>10.2%</td>
</tr>
<tr>
<td>세계 합계</td>
<td>12,308</td>
<td>12,732</td>
<td>12,490</td>
<td>100.0%</td>
<td>5.0%</td>
</tr>
</tbody>
</table>

주: HS code 0401, 0402, 0403, 0404, 0405, 0406, 2105, 3501, 3502. 카제인 등 포함.

표 18 우유 및 크림의 국가별 수출액 변화
단위 백만 NZ달러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10</th>
<th>2011</th>
<th>2012</th>
<th>구성비</th>
<th>증감률 2010~2012</th>
</tr>
</thead>
<tbody>
<tr>
<td>1 중국</td>
<td>1,839</td>
<td>1,714</td>
<td>2,349</td>
<td>33.9%</td>
<td>27.8%</td>
</tr>
<tr>
<td>2 아랍에미리트연합</td>
<td>279</td>
<td>410</td>
<td>364</td>
<td>5.1%</td>
<td>30.5%</td>
</tr>
<tr>
<td>3 아일랜드</td>
<td>338</td>
<td>279</td>
<td>346</td>
<td>5.0%</td>
<td>5.5%</td>
</tr>
<tr>
<td>4 말레시아</td>
<td>318</td>
<td>327</td>
<td>309</td>
<td>4.5%</td>
<td>▼ 3.0%</td>
</tr>
<tr>
<td>5 베네수엘라</td>
<td>418</td>
<td>533</td>
<td>297</td>
<td>4.3%</td>
<td>▼ 33.6%</td>
</tr>
<tr>
<td>6 인도네시아</td>
<td>229</td>
<td>287</td>
<td>257</td>
<td>3.9%</td>
<td>16.8%</td>
</tr>
<tr>
<td>7 필리핀</td>
<td>274</td>
<td>242</td>
<td>225</td>
<td>3.3%</td>
<td>▼ 17.7%</td>
</tr>
<tr>
<td>8 사우디아라비아</td>
<td>285</td>
<td>251</td>
<td>223</td>
<td>3.2%</td>
<td>▼ 21.8%</td>
</tr>
<tr>
<td>9싱가포르</td>
<td>222</td>
<td>215</td>
<td>215</td>
<td>3.1%</td>
<td>▼ 3.2%</td>
</tr>
<tr>
<td>10 스리랑카</td>
<td>200</td>
<td>328</td>
<td>202</td>
<td>2.9%</td>
<td>▼ 30.2%</td>
</tr>
<tr>
<td>상위 10개국 합계</td>
<td>4,511</td>
<td>4,600</td>
<td>4,797</td>
<td>66.2%</td>
<td>6.3%</td>
</tr>
<tr>
<td>세계 합계</td>
<td>6,596</td>
<td>6,765</td>
<td>6,929</td>
<td>100.0%</td>
<td>5.0%</td>
</tr>
</tbody>
</table>

주: HS code 0402.
2. 농업정책

뉴질랜드에서는 농업의 규제 완화와 자유화가 강력하게 진행되어, 현재 정부에 의한 농업보조정책은 대부분 폐기되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도입된 보호주의 정책이 전후에도 확대되어, 1984년에는 농업 생산의 약 30%가 보호 정책의 대미가 되었다. 정부에 대한 과도한 의존 하에서 비효율적인 생산과 고비용 생산이 이루어진 결과, 농업의 생산성은 저하되었고,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table>
<thead>
<tr>
<th>농업지지정책</th>
<th>도입년</th>
<th>폐지년</th>
</tr>
</thead>
<tbody>
<tr>
<td>가격지지정책</td>
<td></td>
<td></td>
</tr>
<tr>
<td>유제품위원회에 의한 가격안정조치</td>
<td>1938</td>
<td>1985</td>
</tr>
<tr>
<td>소박위원회</td>
<td>1965</td>
<td>1987</td>
</tr>
<tr>
<td>식품위원회에 의한 가격안정조치</td>
<td>1976</td>
<td>1985</td>
</tr>
<tr>
<td>양모, 식육, 유제품의 보조적 MAX가격제도</td>
<td>1984</td>
<td></td>
</tr>
<tr>
<td>직접보조</td>
<td>1884~1886</td>
<td></td>
</tr>
<tr>
<td>비료보조, 석탄보조</td>
<td>1884~1886</td>
<td></td>
</tr>
<tr>
<td>농촌은행(RBFC)에 의한 저리융자</td>
<td>1988(주)</td>
<td></td>
</tr>
<tr>
<td>생산지지대지</td>
<td>1984~</td>
<td></td>
</tr>
<tr>
<td>해수구제보조금</td>
<td>1984~</td>
<td></td>
</tr>
<tr>
<td>가족인센트제도</td>
<td>1985</td>
<td></td>
</tr>
<tr>
<td>토지개발정책금리대조</td>
<td>1985</td>
<td></td>
</tr>
<tr>
<td>관세보조</td>
<td>1988</td>
<td></td>
</tr>
</tbody>
</table>

주: 연차별로 RBFC를 민영화.
2.1. 농업생산자에 대한 정책


3. 낙농정책

3.1. 낙농개황

뉴질랜드 낙농은 방목을 중심으로 광대한 방목지에서 성장한 목초를 첫소가 섭취하고, 생유로 변환하는 시스템이다. 생유는 각 유업회사로 공급되고, 유제품으로 가공되어 판매 및 수출되고 있다. 온난한 기후조건과 해역에 받은 강우라는 자연조건을 살려 풀밭을 최대한 활용한 1년 내내 방목주의의 사육 형태를 체택하고 있다. 단, 풀밭의 생육 상황에 맞추어 경영되고 있으며, 계절별식 및 계절착유가 특징이다.

![표 20 생유 및 유고형분 생산량](chart.png)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생유산량</th>
<th>유고형분 산량</th>
</tr>
</thead>
<tbody>
<tr>
<td></td>
<td>총량(ℓ)</td>
<td>1호당(ℓ)</td>
</tr>
<tr>
<td>1995</td>
<td>93.3</td>
<td>663.248</td>
</tr>
<tr>
<td>2000</td>
<td>123.3</td>
<td>930.047</td>
</tr>
<tr>
<td>2005</td>
<td>147.0</td>
<td>1,237,238</td>
</tr>
<tr>
<td>2010</td>
<td>173.4</td>
<td>1,477,531</td>
</tr>
<tr>
<td>2011</td>
<td>191.3</td>
<td>1,621,344</td>
</tr>
<tr>
<td>2012</td>
<td>188.8</td>
<td>1,587,980</td>
</tr>
</tbody>
</table>

## 표 21 뉴질랜드 낙농의 주요 특징

### 1. 방목을 주체로 한 초지낙농
   - 방목에 의해 사료작물 조달, 사료주기, 분뇨의 처리 등에 관한 노동이 절감되어,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설비·기계도 불필요함. 낙농가가 필요한 것은 적 desn사설안으로 외담으나 트레일러가 가지지 않는 경향이 통상적임.

### 2. 저비용으로 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계절착유
   - 뉴질랜드는 인구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국내의 음용시장유수기장이 적고, 생유성량의 95%를 보존성이 있는 유제품으로 수출하고 있음. 1년 내내 적절한 필요가 없어, 목초의 생육이 높은 사라에 맞추어 계절착유를 설정하고 있음. 대부분 9개월의 10개월 간 동안의 계절착유로 하여 유제품 공정 opción을 중단한 반면도 판매도 1년의 한 시기만 집중하고 있음.

### 3. 공공적 농업보조금이 없음
   - 예전에는 국내 산업의 보호정책·수입규제가 이루어졌지만 재정적자와 대외채무의 심각화로 인하여 정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계절적 징계정책을 실시하였음. 농업판의 보조금제도 폐지 등이 행해짐.

### 그림 8 목초에서 유제품 제조·판매에 이르는 유통흐름과 관계 주체

![목초에서 유제품 제조·판매에 이르는 유통흐름과 관계 주체](image)

낙농가지원 조직에는 번식지도와 짓소의 품종개량 등을 하는 'Livestock Improvement Corporation(LIC)', 낙농경영의 컨설팅 등을 담당하는 'Dairy NZ'가 있다. 또한 낙농업체의 업계단체인 'Dairy Companies Association of New Zealand, DCANZ'에서는 낙농업에 관한 정책 제언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낙농가의 수는 감소 경향에 있었지만 최근 제도가 점차 정비되는 농가 1호당 생산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며, 농장 면적 및 사육두수는 모두 확대 경향에 있다. 그 배경으로는 농가의 고령화와 은퇴에 따라 인접한 낙농가와 농장의 통합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3.1.1. 생산

뉴질랜드 국내 음용 소비는 적고, 낙농가로부터 공급되는 생유의 약 98%는 가공용 원료로서 전지분유나 탈지분유 등으로 가공된다. 또한 유제품의 80~90%를 수출할 수 있다. 유제품의 제조는 수출 비율이 높음수록 해외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표 22 뉴질랜드 국내 생유공급량 및 사용량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공급량</th>
<th>2011</th>
<th>2012</th>
<th>2013</th>
</tr>
</thead>
<tbody>
<tr>
<td>사용량</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국내음용유</td>
<td>18,967</td>
<td>20,349</td>
<td>20,401</td>
<td></td>
</tr>
<tr>
<td>공급량에 대한 비율</td>
<td>1.6%</td>
<td>1.5%</td>
<td>1.5%</td>
<td></td>
</tr>
<tr>
<td>공급량에 대한 비율</td>
<td>97.5%</td>
<td>97.8%</td>
<td>97.7%</td>
<td></td>
</tr>
</tbody>
</table>

주: 공급량은 기초재고와 수입분도 포함 일부는 수출 등이 되기 때문에 뉴질랜드 국내 음용 및 가공원료로서의 사용량을 합계로 하여도 생유공급량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표 23 주요 유제품 관련 제품공급량 및 수출량(2013)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공급량</th>
<th>수출량</th>
<th>수출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전지분유(WMP)</td>
<td>1,424</td>
<td>1,295</td>
<td>90.9%</td>
</tr>
<tr>
<td>탈지분유(SMP)</td>
<td>446</td>
<td>390</td>
<td>87.4%</td>
</tr>
<tr>
<td>치즈</td>
<td>347</td>
<td>285</td>
<td>82.1%</td>
</tr>
</tbody>
</table>

주: 공급량은 기초재고와 수입분도 포함
3.1.2. 수출

뉴질랜드는 국내 시장이 작기 때문에 생산된 유제품의 대부분은 수출한다. 유제품 수출액은 2008년에서 2012년에 걸쳐 전체적으로 약 1.4배 확대되었다. 그 기간 동안, 중국으로의 수출은 5.8배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수출 확대를 견인하였다. 그 결과 중 국으로의 수출은 2008년 전체에서 5.1%를 차지하였던 것이 2012년에는 21.4%를 차지 하고 있다.

표 24 뉴질랜드로부터 유제품 수출액 변화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중국</td>
<td>374</td>
<td>5.1%</td>
<td>667</td>
<td>1,388</td>
<td>1,789</td>
<td>2,176</td>
<td>21.4%</td>
<td>21.7%</td>
</tr>
<tr>
<td>미국</td>
<td>706</td>
<td>9.6%</td>
<td>542</td>
<td>515</td>
<td>673</td>
<td>749</td>
<td>7.3%</td>
<td>11.2%</td>
</tr>
<tr>
<td>일본</td>
<td>487</td>
<td>6.6%</td>
<td>315</td>
<td>406</td>
<td>469</td>
<td>465</td>
<td>4.6%</td>
<td>▼0.8%</td>
</tr>
<tr>
<td>사우디아라비아</td>
<td>371</td>
<td>5.0%</td>
<td>191</td>
<td>287</td>
<td>390</td>
<td>366</td>
<td>3.8%</td>
<td>▼0.9%</td>
</tr>
<tr>
<td>아랍에미리트연합</td>
<td>90</td>
<td>1.2%</td>
<td>150</td>
<td>197</td>
<td>324</td>
<td>374</td>
<td>3.7%</td>
<td>15.6%</td>
</tr>
<tr>
<td>말레이시아</td>
<td>371</td>
<td>5.0%</td>
<td>223</td>
<td>266</td>
<td>366</td>
<td>369</td>
<td>3.6%</td>
<td>0.7%</td>
</tr>
<tr>
<td>베네수엘라</td>
<td>467</td>
<td>6.3%</td>
<td>225</td>
<td>335</td>
<td>378</td>
<td>367</td>
<td>3.6%</td>
<td>▼2.9%</td>
</tr>
<tr>
<td>필리핀</td>
<td>386</td>
<td>5.2%</td>
<td>261</td>
<td>339</td>
<td>414</td>
<td>364</td>
<td>3.6%</td>
<td>▼12.2%</td>
</tr>
<tr>
<td>아르헨티나</td>
<td>338</td>
<td>4.6%</td>
<td>239</td>
<td>265</td>
<td>315</td>
<td>363</td>
<td>3.5%</td>
<td>12.0%</td>
</tr>
<tr>
<td>호주</td>
<td>367</td>
<td>5.0%</td>
<td>259</td>
<td>397</td>
<td>426</td>
<td>349</td>
<td>3.4%</td>
<td>▼18.2%</td>
</tr>
<tr>
<td>기타</td>
<td>3,415</td>
<td>46.3%</td>
<td>2,665</td>
<td>3,682</td>
<td>4,656</td>
<td>4,241</td>
<td>41.6%</td>
<td>▼8.8%</td>
</tr>
<tr>
<td>세계 합계</td>
<td>7,370</td>
<td>100.0%</td>
<td>5,727</td>
<td>8,146</td>
<td>10,201</td>
<td>10,193</td>
<td>100.0%</td>
<td>▼0.1%</td>
</tr>
</tbody>
</table>

주: 2012년 시점에서 국가별 상위 10개국을 기재함.

유제품 품목별 수출량은 전지분유(WMP), 탈지분유(SMP), 버터·유지, 치즈 등 4개 품 목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수출하는 국가 중 상위 5개국(2011년 수출 액 기준)의 품목별 수출 상황을 살펴보면,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는 전지분유, 탈지 분유, 버터·유지의 수출량이 많은 편이다.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으로는 치즈 수출량이 임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수출총액을 총량으로 나눈 단가는 중국용 수출보다 미국이나 일본 쪽이 높은 편이 다.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품목이 수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5 뉴질랜드로부터 수출되는 품목별 수출 상황(2011 수출상위 5개국)

<table>
<thead>
<tr>
<th>품목</th>
<th>중국</th>
<th>미국</th>
<th>일본</th>
<th>호주</th>
<th>필리핀</th>
<th>세계 합계</th>
</tr>
</thead>
<tbody>
<tr>
<td>수출총량(톤)</td>
<td>467,811</td>
<td>104,325</td>
<td>94,603</td>
<td>98,895</td>
<td>132,525</td>
<td>2,499,341</td>
</tr>
<tr>
<td>생유</td>
<td>467,811</td>
<td>104,325</td>
<td>94,603</td>
<td>98,895</td>
<td>132,525</td>
<td>2,499,341</td>
</tr>
<tr>
<td>탈지분유(SMP)</td>
<td>77,474</td>
<td>513</td>
<td>5,021</td>
<td>5,395</td>
<td>33,712</td>
<td>361,625</td>
</tr>
<tr>
<td>전지분유(WMP)</td>
<td>302,261</td>
<td>2,389</td>
<td>1</td>
<td>11,660</td>
<td>27,661</td>
<td>1,109,636</td>
</tr>
<tr>
<td>소비자용상품</td>
<td>2,451</td>
<td>33</td>
<td>3,791</td>
<td>2,983</td>
<td>8,826</td>
<td>45,573</td>
</tr>
<tr>
<td>유단백농축물(MPC)</td>
<td>1,766</td>
<td>46,353</td>
<td>2,631</td>
<td>1,381</td>
<td>1,290</td>
<td>77,953</td>
</tr>
<tr>
<td>버터, 유지</td>
<td>34,451</td>
<td>18,931</td>
<td>5,246</td>
<td>16,946</td>
<td>11,303</td>
<td>413,490</td>
</tr>
<tr>
<td>치즈</td>
<td>13,535</td>
<td>1,875</td>
<td>61,174</td>
<td>46,472</td>
<td>10,186</td>
<td>252,839</td>
</tr>
<tr>
<td>카제인</td>
<td>6,336</td>
<td>29,456</td>
<td>8,472</td>
<td>990</td>
<td>905</td>
<td>65,656</td>
</tr>
<tr>
<td>수출총액(천 US달러)</td>
<td>1,788,886</td>
<td>673,265</td>
<td>469,192</td>
<td>426,393</td>
<td>414,122</td>
<td>10,200,398</td>
</tr>
<tr>
<td>단가(1톤당)</td>
<td>3,824</td>
<td>6,454</td>
<td>4,960</td>
<td>4,312</td>
<td>3,125</td>
<td>4,081</td>
</tr>
</tbody>
</table>

주: 전액 미국달러.  

3.2. 낙농업 정책

3.2.1. 낙농산업재편법

2001년 뉴질랜드 데어리 보드(New Zealand Dairy Board, 뉴질랜드 데어리 그룹(New Zealand Dairy Group), 키위 데어리(Kiwi Co-operative Dairies)를 합병하여 폰테라(Fonterra Cooperative Group)2) 사를 설립하기 위한 법률으로 “낙농산업재편법 (Dairy Industry Restructuring Act, DIRA 2001)”이 제정되었다. 또한 뉴질랜드 정부는 합병에 의해 폰테라사가 국내 생유생산량의 95% 초과하여 집유하여 독점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에 대하여 동사를 1986 통상법(Commerce Act 1986)이 규정하고 있는 상업위원회의 자세한 조사(検査, 독점금지법)의 적용으로부터 면제하였다.

2) 폰테라는 뉴질랜드 1만 500여 지방농가들이 주식을 보유한 협동조합으로 뉴질랜드 낙농가의 95%가 폰테라 소속임. 이곳 매출액은 NZ달러로 무려 176억 달러화로 15조원으로 95가 수출되는 만큼 뉴질랜드 수출산업에도 영향을 하고 있을 뉴질랜드 전체 수출액의 25%나 차지하며, 농가당 평균 농장 규모는 140ha, 농가당 평균 쌀소 두수는 480대, 목장당 연간 평균 생산량은 15만 798ℓ임. 폰테라 사장 콘래드 감(1974년)은 붉은 레드(1.85만 달러), 이 외의 95%이상이 전지분유, 치즈, 버터, 단백질 등의 유제품으로 가공된 품목을 포함해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140여 개국으로 수출되었다. 전 세계 1000개의 국가에 자사 및 공장 등 사업장이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물량도 30억 리터 즉 350만 톤에 달함.

22 | 2015. 4.
낙농산업재편법은 낙농가와 소비자의 보호나 신규 유업회사의 시장참여 촉진을 돕기 위한 것이며, 낙농가는 폰테라사에 가입 및 탈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신규 가입자는 기존 농가주주와 동등하게 다루어지는 것, 폰테라사는 집유량의 5%를 상한 으로 독립적 유업회사에 대하여 합의 가격 혹은 규정 가격으로 공급해야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의 시행으로 오픈 컨트리 데이리(Open Country Dairy), 신레이(Synlait), 뉴질랜드 데어리스(New Zealand Dairies), 미라카(Miraka) 등 4개사가 신규 참여하였다. 그 후, 폰테라사의 집유 점유율은 계속 저하되어 2012/13년도에는 88%가 되었다. 나머지 12%를 다툼타가(Tanua Co-Operative Dairy Company), 웨스트랜드(Westland Co-operative Dairy Company) 및 신규 참여 4개사 등 총 6개사가 차지하였다.

 동법의 경쟁촉진 규정은 시한적 조치이며, 생유에 관한 낙농산업규제에 관한 재검토와 낙농산업재편법의 종료 시기에 관한 협의가 2007년에 시행되었다. 정부는 동법의 경쟁촉진 규정의 연장을 결정하였고, 종료 시기를 북섬의 폰테라사의 점유율이 80%로, 웨스트랜드를 제외한 남섬의 폰테라사의 점유율이 80%가 될 때까지로 재설정하였다.

3.2.2. 낙농산업재편법의 개정

 2012년 7월, 낙농산업재편법이 개정되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폰테라사의 유가 설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으로 유가 설정 관련 정보의 공개, 상업위원 회에 의한 유가 감사, 감독 제도의 도입이 새롭게 규정되었다.

 또 하나는 폰테라 주식의 낙농가간 매매나 뉴질랜드 주식시장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새롭게 폰테라 주식시장(Trading Among Farmers시장, TAF)과 폰테라 주주 기금이 창설되었다. 그전까지 폰테라주(株)는 낙농가가 생유 총량에 따라서 보유하고, 매년 12월에 걸쳐 다음 시즌 제출량의 증감 등에 따라 폰테라사에서 직접 거래로 추가구매나 재매입을 하고 있었다. 새로운 구조 하에서 낙농가는 보유한 폰테라주를 TAF시장에서 매각하거나, 폰테라 주주기금에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폰테라 주주기금에 매각된 주식은 뉴질랜드 주식시장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매각된다. 구입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결정권(투표권)을 가질 수는 없다.

3)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
3.2.3. 관개가속기금(Irrigation Acceleration Fund, IAF)

뉴질랜드 정부는 국가 전체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사유밀도 증가에 따른 분뇨처리와 사료사용에 따른 물 오염 등 환경문제 발생에 대처하도록 하는 대규모 관개정비 관련 보조금을 준비하고 있다.

2011년에서 2015년까지의 5개년 정책으로, 3,500만 NZ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보조 대상은 농촌지역의 대규모 물기반시설 정비, 전략적 수리용, 관리 기술 연구, 공동체 수준의 관개 계획 작성 및 사회기반시설 정비 등 3개로 보조율의 상한은 50%이다.

3.2.4. 농업유지기금(Sustainable Farming Fund, SFF)

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하여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관리자와 업계 단체 및 연구자,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실시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2013년 지원 프로젝트 중 낙농업과 관련된 것에는 ‘뉴질랜드 낙농업에서 여성 리더십 농력 구축’, ‘북 캐터베리지방의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물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3.2.5. 1차 산업성장파트너십(Primary Growth Partnership, PGP)

비즈니스 주도 및 시장주도형 1차 산업 기술혁신을 위하여 장기 목표를 가지고 정부와 산업체가 활동 자금을 서로 내놓는 기술 혁신 프로그램이다. 1차 산업의 생산성, 수익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1차 산업부는 2025년까지 수출액을 배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낙농업 부문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낙농업 가치사슬 변화(Transforming the Dairy Value Chain)’이 있다. 데어리 뉴질랜드(Dairy NZ)와 존테라가 주도하고 있으며 낙농기에 의한 생산 단계(Pre-farm gate), 유업 업체에 의한 생산 단계(Post-farm gate) 등 2개의 하부 프로그램(sub program)으로 나누어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낙농업의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 촉진, 낙농업계와 연구기관의 산학연계 촉진, 푸드 사이언스의 연구 체계 구축 등 3개관점에서 지원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장기 목표는 세계 시장에서 국제 경쟁력 유지, 신제품·신규 시장 창출에 의한 수출 확대·경제성장, 국제적인 평가의 향상 등이다.
표 26 낙농업 기술사슬 혁신 프로그램

- 변혁을 위한 대처
  -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 촉진
  - 산업계와 연구기관과의 산학연계 촉진
  - 뉴스 사연스의 연구 체계 구축

- Output (2010~2017년)
  - 국가적인 연구 개발 관제(National Breeding Objective, NBO)로서 유전자연구 설정
  - 영양학과 동물복지, 농장경영 등에 관한 산업계 목표의 평가·검증시스템 정비
  - 낙농업 관계자간 네트워크와 각종정보, 기술 습득 기회에 대한 접근 향상
  - 생산·공정 관리와 품질관리를 위한 새로운 방법 개발
  - 우유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새로운 생산방법 개발
  - 제품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양 및 건강면의 과학적 근거 명확화

- 단기적 결과(산업 성장) 파트너십 관계자 파급 성과 (2012~2019년)
  - 각종 유전적 개량(genetic gain)의 성과 향상
  - 낙농가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과 소고체제의 기반 확충
  - 취종에 대한 품질와·관리 조성
  - 유류품의 효율화(산소화, 유분 식감, 폐기물 식감)
  - 마켓 자원의 신제품·새로운 창출
  - 지속가능한 경쟁력(어성생생)의 강화
  - 낙농가에 대한 경제적이나 신기술의 도입
  - 요구에 따른 공급 능력의 확충
  - 생유 생산량의 증대와 유제품의 품질향상

- 중기적 결과(유업 전반적 파급 성과) (2016~2023년)
  - 생산성 향상
  - 지식과 기술 향상
  - 자식가능하면서 안정적인 자원이용
  - 유제품의 양적·질적 향상
  - 시장규모 및 점유율 확대
  - 낙농· 유업 부문의 대폭적인 성과 향상
  - 수익성과 시장 경쟁력에 대한 적응력 향상
  - 낙농· 유업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확대와 생산 활동에 의한 환경분야의 최소화 영위

- 장기적 결과(뉴질랜드 전반적 파급 성과) (2020년 이후)
  - 낙농· 유업에 있어서의 자원의 가치 최대화
  -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뉴질랜드 낙농·유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
  - 신규시장의 창출에 의한 수출 및 경제성장의 확대 (2025년까지 매년 GDP를 27억 NZ달러 증가)
  - 뉴질랜드 낙농·유업에 대한 국가적인 평가·향상

자료: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http://www.mpi.govt.nz/).
4. 이사람

뉴질랜드는 오래전부터 강력한 정부의 규제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외부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채 위기를 맞이한 뉴질랜드는 1980년대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파탄한 개혁이 실시되었다.

1984년부터 단행된 농업부문의 개혁은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한 개혁이라기보다는 국제적 경쟁력을 키우는데 주력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한 사례이다. 전문가들은 뉴질랜드의 농업보조금 철폐와 자국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자국의 농업 종사자들을 감소시키고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농업인은 약 1% 미만의 감소가 있었을 뿐이었으며, 자립심을 키우고 서로 단합하는 계기를 만들어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뉴질랜드 사례는 농업부문도 유연성을 가지고 시장의 변화에 대응이 가능하며, 급격히 변화하는 대내외적 상황에도 어느 정도의 조정기간이 있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FTA를 통한 농업시장 개방 압력이 강해지는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정책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시장의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연한 대처능력 함양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Statistics New Zealand.
USDA. 2012. New Zealand Dairy and Products Semi-annual. GAIN Report, 2012.05.03. USDA.
USDA. 2013. New Zealand Dairy and Products Semi-annual. GAIN Report, 2013.05.15. USDA.

참고사이트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http://www.mpi.govt.nz/)
日本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j/kokusai/kokusei/kaigai_nogyo/k_gaikyo/nzl.html)